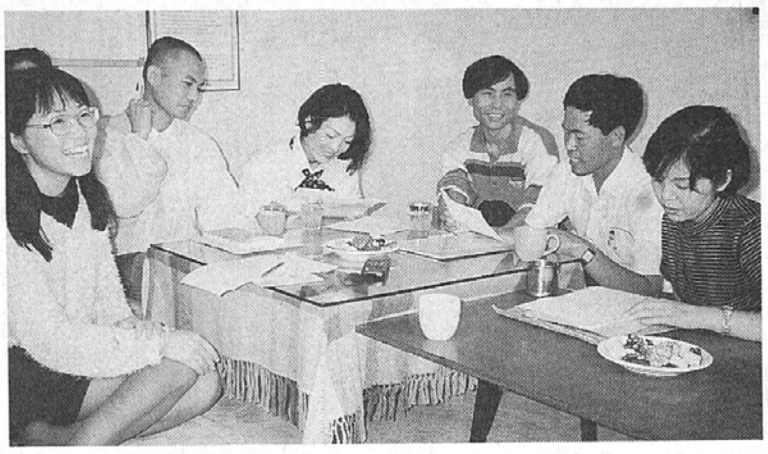
"불심과 창작 어우러져 자기 계발 값진 기회"

교계 문학모임 강좌개설 잇따라



◇매주 일요일 모임을 갖고 있는 현대불교문학회 회원들이 '불교문예' 발간 준비에 여념이 없다.

가을은 모두가 감성깊은 문학도가 되는 계절!

불자주부 차진숙씨가 여기야말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유익한 공간이라 자부하는 곳은 바로 주부문학회(회장 허정숙).

"가족, 친구, 부엌, 시장에 한정돼 있는 시야를 넓히고 여느 문학가 못지않은 제 속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싶어서 주부문학회에 참여하게 됐다"고 차보살은 말한다.

주부문학회가 시작된 것은 올해 초. 불교문학포교원 원장 혜관스님의 주관아래 강좌가 개설되면서 평소 문학에 욕심이 있던 불자주부들이 매월 셋째주 금요일 오전 11시면 하나 둘 모이기 시작, 10여명의 회원이 현재 참여하고 있다.

"부처님 말씀 하나하나가 바로 시요, 문학이지요. 주부문학회에서는 주부들에게 불교신앙과 문학을 접합시켜 문학창작에 대한 이론과 실기, 시낭송회, 작품감상, 문학순례등을 하고 있습니다"혜관스님의 설명이다.

불교문학포교원은 주부문학회와 함께 매월 넷째주 일요일 문단데뷔 작가와 그를 꿈꾸는 보다 전문적인 사람들의 모임인 현대불교문학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 모임에서는 실제로 창작 작품을 서로 비평하기도 하고 창작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정기적으로 작품집을 발간하고 있다.

대구지역에서 석용산스님을 회주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덕원 시인학교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와 7시 두차례의 강좌를 통해 불자들을 이끌어오고 있다. 주부,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의 불자들이 동참하고 있는 시인학교는 새로운 신행형태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주부·직장인·학생등 참여계층 다양

또 진각문학회도 기성작가 배출과 문집발간등 89년부터 꾸준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같은 문학회 외에 책을 읽고 서로의 감상을 토론하는 사천왕사 즐거운 책읽기 모임도 운영되고 있다.

문학의 대중화와 더불어 불자들도 과거 수동적으로 읽는 문학에서 탈피해 각종문학회와 독서모임교실등을 통해 이제 직접 "참여하는 문학으로 동참하고 있다.

특히 요즘 불자들은 자기실현욕구가 강해 그 욕구 표출의 한 방법으로써 문학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불자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삶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삼기도 하고 불교를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고.

관계자들은 문학회의 미약한 환경개선과 더많은 스님과 불자들의 관심을 호소하면서 가을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문학캠프 등도 운영돼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문학회에 참가하고 있는 불자들은 "정체돼 있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내 이름을 달고 쓰여지는 글을 쓰는게 즐겁다"면서 "다양한 불교문학교실의 운영으로 신행의 폭이 더욱 넓어졌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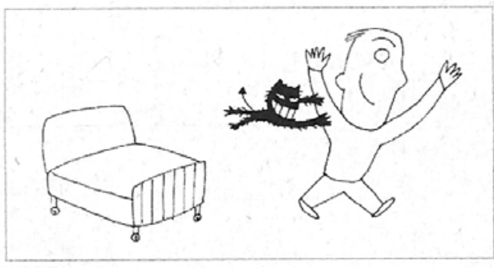
문학단체	강좌·모임	연 락 처
주부문학회	매월 셋째 금 오전11시	(02) 308-9520
현대불교문학회	매월 넷째 일 오후2시	〃
공덕원시인학교	매주 목 오후2시, 7시	(053)741-0077
사천왕사 독서모임	매월 둘째 넷째 금	(02) 939-3900
진각문학회		(02)512-6567~8

이은자 기자

이근후 건강칼럼 <36>

콜레라 대비책

잠복균 추후 발병 가능성…방역 체계 세워야



콜레라가 번지기 시작하면서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개의 경우 여름철이 지나고 가을이 접어들면 콜레라는 가라앉게 되는데 이번 콜레라는 그런 것에도 아랑곳 하지 않나보다. 역사적으로 보면 콜레라의 원발생지역이 인도의 갠지스 유역이 아닌가 하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콜레라의 특성은 한번 발생하면 광범위한 지역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한다는 점이다. 이런 확산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있어온 이야기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것이 지역적으로 분산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원인균인 콜레라균도 변종이 생겨 세대교체를 이루었다는 점도 들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치사율이다. 원래 콜레라는 한번 걸리면 사망하는 율이 50%를 웃돌았으니 가히 치명적인 무서운 병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콜레라는 치료방법이 발달됨으로써 치사율이 1% 정도밖에 안된다.

이 콜레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포만을 갖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콜레라가 번지면 수산시장이 문을 닫을 정도로 한산해지는 이유도 바로 지나친 공포 때문에 일어나는 해프닝이다. 생선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생선을 익히지 않고 먹는다면 그것은 콜레라야 들어오너라 하고 내몸을 맡기는 경우와 같겠지만 극단적으로 오염된 생선일지라도 잘 익혀 먹게 되면 콜레라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선진국에서는 여행자들이 묻혀 들어오는 콜레라로 인해 발병을 하더라도 철저한 치료와 예방으로써 금방 박멸하고 만다.

콜레라의 대처를 위해 다시 한번 몇가지를 당부해 본다. 첫째 무조건 익혀 먹어야 한다. 익히지 않은 것은 여하한 것도 먹지 않는다. 물도 끓인 것을 마신다. 두번째로는 외출했다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거나 샤워를 한다. 세번째로는 콜레라 발생지역에 가까운 곳은 여행을 삼가한다. 이런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설사를 경험하게 되면 곧바로 의료적인 진단과 도움을 받도록 한다.

보기에 간단한 이런 몇가지만을 우리 모두가 철저히 지켜준다면 콜레라는 쉬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기회에 우리들이 한번더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는 방역체계이다. 이번 콜레라의 유행은 충분히 예견될 수가 있었던 것으로 좀더 신속한 대처를 철저히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미 잠복한 콜레라균은 내년에 발병시킬 위험아 대단히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보균자의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콜레라에 대한 지나친 공포도 금물이지만 소홀한 대비는 더 큰 재앙을 가져다준다.

만화 法句經 법구경

이향원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환, 소식
- 자체홍보
- 안내
- 각종행사
-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 (02)737-0697

그룹으로 周易 강의합니다

易은 훌륭한 철학서인 동시에 占書이기도 한데 소리에 응하는 메아리처럼 미래에 야기될 사태를 정확히 예고하는 無上의 인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정:3개월
전화:(02) 723-5665

※지방도 출장지도합니다.

기자증 분실

- 성명 : 이 경 숙
- 소속 :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기자증번호 : 440487
- 분실일 : 1995. 8. 5
- 분실사유 : 지하철내서 분실

공장부지 급매

■위치 : 화성군 남양면 소재

■평수 : 약 4천평 정도

연락처

0339-356-8383~5
011-278-0469

연꽃잉어화
-전문작품-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집안의 생기와 영업의 활기를 가져오는 길화로 전해오는 바 생동감을 주는 산작품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실내외 벽화·병풍 및 액자화 작품
- 불사용작품(作品)은 주문에 의하여 봉사가로 특별 작품해드립니다.

시내·지방·외국 어디나 그림만 또는 표구작품을 해드립니다

우만(宇滿)화실

서울 용산구 청파1가동 173-1 전화:(02)3273-0081
온라인:국민은행 남영지점 822-24-0171-328(우만)

석조각의 명문 동양석재

오직 일념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 일찍이 홍익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 전통 불교문화 창달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작품 제작을 일념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사오니
- 대덕 스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 바랍니다.

조각가 이 규 동 / 대 표 이 규 영 합장

동양석재 주간:(0357)541-4705 야간:(0351)847-2001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6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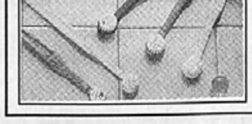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국내최대 범종주조회사 聖鍾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 (02)733-6141(서울사무소)
☎ (0331)283-2083(공장)

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칫솔

좌우로만 칫솔질하세요.
상하 또는 둘러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판매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온라인: 농협역삼동지점 096-01-239051(서클상사)
■전화: (02)556-3076~7 ■팩스: (02)556-3078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8월 검정고시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쉽게 풀이된 해설 「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학교수업식 「강의 녹음」 학습
대학 졸업과정	⊙ 철저한 1:1 「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高·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영·수)「비디오가정교사」특별제공(개인지도용)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일(남, 27세)드림—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항만청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